

제로혁명, 녹색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초대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강성익 / 정회원,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ang, Sung-ik, KIRA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중앙대학교 대학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 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현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사업단장

건축문화예술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건축의 바른 이해와 건축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09)’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건축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글로벌적인 이슈를 받고 있는 그린건축의 선도에 설 수 있는 전시회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다.

지난 2006년 9월 첫 번째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 전시회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와 관련된 이슈들이 핵심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로혁명, 녹색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초대”로 전시주제를 정하였다.

그동안 3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우리 건축사들이 건축산업의 중심에 서있으면서도 진정 그 역할에서 소홀이 되어있던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기 시작하며 21세기의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는 산업전시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여타 전시회와 차별성,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회원의 회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협회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흑자사업으로 발전시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도 하며,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여타 건축자재전시회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국내유일의 법정 건축전문가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라는 점이다.

둘째, 전문가들 간의 진정한 건축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건축전문전시회이다

셋째, 건축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문화와 공학기술의 종합체로서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인테리어 설계, 조정, 기계 및 전기, 건축자재 회사, 부동산 개발, 분양 등 건축전문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전시회가 된다.

넷째, 문화적인 공간과 산업적인 분위기를 엮어서 전시회를 구성하여 건축작품전과 건축사미술전, 건축사진전, 어린이 건축학교 등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축제전시회가 될 것이다.

다섯째, 1만여 건축사에 대한 연수교육이다. 건축사등록원 설립에 대비한 정규프로그램 교육과, 올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 협회가 친환경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친환경건축 설계와 운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전시회와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전략'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섯째, 올해 우리 협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제1회 건축영화


제' 를 이번 전시회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건축영화제로서 종합예술인 건축과 영화가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일반인과 학생들까지도 건축을 이해하고 관심을 이끌 수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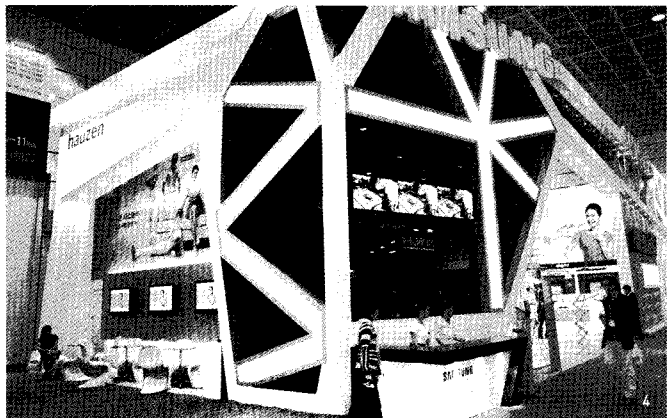
이외에도 공공기관 홍보관, 한국농촌건축대전, 생태도시관, 서울디자인 올림픽 등 많은 전시를 연계하여 기획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건축경기 하강으로 참가업체 섭외 및 유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전시사업단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사업단 위원들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 전시회가 건축사를 위하고 관련전문가들 모두를 위한 전시회가 되어야 한다. 건축계 전체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각 시도회장을 위시하여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업체유치에 노력하고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건축사가 이 행사의 주인이며 정성을 다한 노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 이 건축계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1. 대전 참가업체 홍보관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3. 대전 기간 중에 '열린 회원인증 및 교육규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2. 대전 기간 중에 열린 '건축사연수교육' 강의 장면
4.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시스템을 소개한 '삼성전자' 홍보관 전경